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 중학생 자녀의 아내학대 목격과 자녀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

Adolescent Children's Domestic Violence Exposure & Psycho-social Maladjustment

-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 Children's Wife Abuse Witnessing and Child Abuse Victim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강사 김정란*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University

Lecturer : Kim, Jeong-R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dolescent children's exposur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influences their psycho-social maladjustment.

The SPSS 10.0 for Windows was used to analyze data obtained through 589 adolescents who attend middle school in Gwangju are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Domestic violence exposure in adolescent children was considerably serious; 84.4% child abuse by parents, 66.0% witness of father-to-mother abuse.
2. Child abuse and wife abuse had close relation in occurrence and severity.
3.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s were different by the victim of child abuse, the witness of wife abuse, and the style of domestic violence exposure.
4. Domestic violence exposur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adolescent children's psycho-social maladjustment.

▲주요어(Key Words) : 가정폭력 노출(Domestic violence Exposure), 자녀학대(Child abuse), 아내학대(Wife abuse), 심리사회적 부적응(Psycho-social maladjustment)

1. 서론

1970년대에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정폭력은 가정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의 연구주제로 등장하였고, 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간 폭력 등 가정폭력의 유형 역시 세분화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은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원가족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개인의 생애발달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자녀의 경우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연옥, 박인아, 2000; 조미숙, 1999; Fantuzzo, Lindquist, 1989; Kashani, Allan, 1998). 더욱이 학대의 부정적 영향이 학대 발생 당시의 단기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이어져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란, 1999; 박은미, 1999; Briere, Runtz, 1988).

또한 아내학대와 자녀학대는 중복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아내를 학대하는 남성들의 경우 자녀까지 학대하는 경향이

* 주저자 : 김정란(kjr@chonnam.ac.kr)

있으며, 남성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성들 역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dleson, 2000). 이러한 점에 근거해 볼 때, 자녀학대와 아내학대는 상호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적 시각 보다는 서로 독립된 개별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자녀학대 문제는 아동복지 및 청소년복지적 관점에서 쟁점화 되고 있으며, 아내학대는 여성운동 차원에서 공론화 되기 시작하여 현재도 여성복지적 관점에서 쟁점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연구들 또한 이들 폭력문제를 각기 개별적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성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자녀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되어 발생하고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두 사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에 개별접근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최근에 들어서야 학계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김연옥과 박인아(2000), 신혜섭(2000)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에 초점을 두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관련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서야 시작되어 현재 초기단계이며, 자녀학대 피해경험과 아내학대 목격경험을 모두 포함하여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나아가 청소년기는 심리사회적인 변화가 격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내학대와 자녀학대를 모두 포함하여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가족복지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기 자녀가 경험하는 가정폭력 노출의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어떠한가?
- 셋째,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 노출실태

국내에서 선행되어진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에서 보고된 우리나라의 가정 내 청소년 자녀학대와 아내학대의 실태를 살펴보

면, 자녀학대의 경우, 김재엽과 양혜원(1998)의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 경험율은 53.6%, 신체적 학대 경험율은 60.4% 등 청소년 자녀의 50% 이상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자녀학대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학대 실태의 경우, 김정란(2002)의 연구에서 심리적 학대 경험율 81.1%, 신체적 학대 경험율 39.2%, 성적 학대 경험율 47.4% 등 아내학대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나아가 아내학대와 자녀학대 등의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중복되어 발생되기 쉽다. Walker(1984, Edleson, 2000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남성에 의한 아내학대와 자녀학대의 중복발생률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 여성의 28%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hes(1988)는 구타당하는 여성과 같이 쉽터 오는 자녀의 60%가 가정 내에서 신체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녀학대와 아내학대의 중복발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인데, 김연옥 등(2000)의 연구에서 조사대상 아동의 36.3%가 가정 내에서 아내학대와 자녀학대가 중복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쉽터에 일시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신혜섭(2000)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아동의 91.4%가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학대유형이나 조사대상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학대가정 내에서 자녀학대와 아내학대의 중복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내학대와 자녀학대의 중복발생은 학대가정의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정폭력에 대해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지지해준다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인 동시에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다(Lazarus, 1963). 그리고 이에 반하는 개념이 부적응인데, 심리사회적으로 부적응된 청소년이나 아동은 지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으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나아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인지적·정서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성인기의 정신건강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chenbach와 Edelbrock(1991)은 청소년기의 적응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청소년기에 가장 흔히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행동증후군과 심리장애의 원인과 발생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계획하거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능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행동증후군은 내재화 문

제(internalizing problems)와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로 세분화되었는데, 내재화 문제에는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우울/불안, 신체적 증상 등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외현화 문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은 친구나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사회성, 교과목 수행정도나 학업수행상의 문제여부를 살펴보는 학업수행, 그리고 청소년이 가입한 집단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는 사회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Achenbach와 Edelbrock(1991)의 개념을 적용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 등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과잉 통제된 행동인 '내재화 문제', 둘째, 공격행동, 비행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과소 통제된 행동인 '외현화 문제', 셋째, 사회성 및 학업수행능력 과 관련된 '사회적 능력'으로 분류한다.

3.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경주와 신효식(1998)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부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신체적 학대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방임은 사회적 위축, 공격성, 과잉활동성, 강박성 등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련과 최보가(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명의 청소년 폭력범을 대상으로 한 이경은과 장덕희(2000)의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자들이 자녀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의력결핍, 공격성, 낮은 학업성취,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의 행동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양혜원, 전명희, 2001; Fantuzzo et al., 1989; Jaffe, Wolfe, Wilson, Zak, 1986; Markward, 1997)이 아내학대를 목격한 자녀들은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 및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두통, 복통, 천식, 위궤양, 말더듬, 야뇨증, 불면증, 우울증, 자살소동, 정신병, 공포, 수면거부 등의 심리적 증상과 등교거부, 성적저하, 공격적·과격적 행동, 도벽, 폭행, 가출 등의 행동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재엽과 정소연(1997)은 비행청소년 집단이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목격이 유의미하게 많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Markward(1997)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이 심리적 증상과 함께 공격적 행동, 폭행 등의 행동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중학교 1~3학년 65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58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589)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학생	298(50.6)	유형†	친부/친부	579(98.5)
	여학생	291(49.4)		부모	친부/양모
연령	13세	79(13.4)		양부/친모	2(0.3)
	14세	209(35.5)		양부/양모	2(0.3)
	15세	172(29.2)	가정경제상태†	하류층	34(5.8)
	16세	129(21.9)		중하류층	252(43.3)
	평균	14.60세		중상류층	273(46.9)
학년	중 1학년	262(44.5)	상류층	23(4.0)	
	중 2학년	164(27.8)	거주지	대도시	524(89.0)
	중 3학년	163(27.7)		군/읍/면	65(11.0)
부연령'	31-39세	33(6.0)	가족형태	핵가족	481(81.7)
	40-44세	265(48.4)		확대가족	108(18.3)
	45-49세	210(38.4)		모연령'	30대 이하
	50세 이상	39(7.1)	40-44세		317(59.4)
	평균	44.54세	45세 이상	79(14.8)	
부학력'	중졸 이하	43(7.6)	평균	41.32세	
	고졸	230(40.4)	모학력'	중졸 이하	62(10.9)
	대졸	241(42.4)		고졸	344(60.6)
	대학원졸	55(9.7)		대졸	146(25.7)
		대학원졸		16(2.8)	
부직업'	생산직	115(20.0)	모직업'	생산직	16(2.8)
	농/어업직	31(5.4)		농/어업직	18(3.1)
	서비스/판매직	81(14.1)		서비스/판매직	109(18.8)
	사무직	206(35.8)		사무직	62(10.7)
	반전문기술직	54(9.4)		반전문기술직	30(5.2)
	관리직	51(8.9)		관리직	8(1.4)
	전문직	27(4.7)		전문직	11(1.9)
	무직	10(1.7)		주부	326(56.2)

† 표시된 항목의 퍼센트는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퍼센트임

2. 조사도구

1)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자녀학대 피해경험과 아내학대 목격경험을 조사하였다. 자녀학대 피해는 장화정(1998)이 사용한 척도를 중심으로 신체적 학대 6문항, 정서적 학대 10문항, 방임 10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내학대 목적은 Straus, Hamby, Boney-McCoy, Sugarman

(1996)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이용하여 심리적 학대 5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척도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없었음 0점~거의 매일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개별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녀학대 피해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아내학대 목격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9$ 로 나타났다.

2)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 List(CBCL: 아동·청소년 행동척도)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표준화시킨 K-CBCL을 사용하였다. CBCL은 만4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행동양식에 대한 표준화된 척도인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그리고 사회적 능력 등을 측정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우울/불안 14문항, 위축 9문항, 신체증상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 20문항, 비행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점 리커트 척도(해당없음 0점~자주 그렇다 2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개별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우울/불안 Cronbach's $\alpha=.82$, 위축 Cronbach's $\alpha=.75$, 신체증상 Cronbach's $\alpha=.83$, 공격성 Cronbach's $\alpha=.83$, 비행 Cronbach's $\alpha=.71$ 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척도는 친구 수, 친구와 어울리는 정도, 타인과의 관계, 혼자 놀거나 공부하는 정도 등을 알아보는 사회적 척도 6문항과 학업성적의 평균, 특수학급 여부, 휴학여부 등을 알아보는 학업수행능력 7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학업수행능력은 중학생들의 현 교과과정과 부합되지 않은 질문이며, 척도 매뉴얼에도 임상집단과 정상집단의 차이검증 결과 변별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3점 리커트 척도(친구없다, 타인과의 관계나 혼자 놀거나 공부하는 정도 나쁜 편이다 0점~친구 수 4명 이상, 타인과의 관계나 혼자 놀거나 공부하는 정도 좋은 편이다 2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개별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적 능력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60$ 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주간에 걸쳐 5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2003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광주지역

중학교 1~3학년 65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636부의 질문지가 수거되었으며, 부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총 589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Windows용 SPSS 1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폭력 노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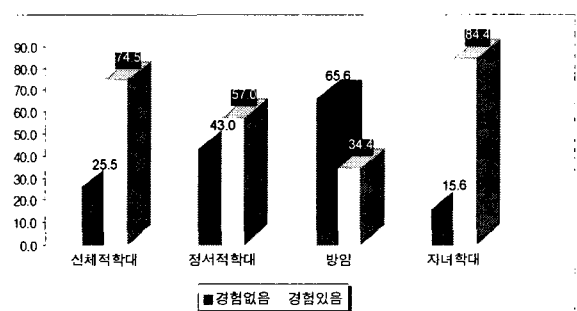
넷째,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정폭력 노출실태

1) 자녀학대 피해실태

청소년의 가정 내 자녀학대 피해실태를 경험유무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그림 1>), 조사대상 청소년의 74.5%가 지난 1년 동안 최소 1번 이상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57.0%가 정서적 학대, 34.4%가 방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조사대상 청소년 중 84.4%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녀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정 내 자녀학대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자녀학대 피해 경험률

조사대상자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 자녀학대 피해실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표 2>), 신체적 학대의 경우 '부모가 회초리나 빗자루 등으로 때린 적이 있다'에서 가장 많은 피해빈도(66.2%)를 나타냈다. 이 항목은 체벌의 성격이 짙은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체벌이 부모들에 의해 자녀양육이나 자녀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25.0%),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22.6%) 순으로 피해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는 '부모가 이 웬수야 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많은 피해빈도(37.2%)를 나타냈으며,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한 적이 있다'(25.8%), '멍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의 욕을 한 적이 있다'(25.3%) 순으로 피해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를 손상시키는 부모의 정서적 학대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방임을 살펴보면, '학교에 낼 돈이 있는데 제 때에 주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가장 많은 피해빈도(17.3%)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아프거나 몸에 상처가 나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13.2%), '먹고 싶은데 아침을 챙겨주지 않아 굶고 학교에 간 적이 있다'(10.0%) 순으로 피해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 청소년기 자녀들에게는 방임유형 중 교육방임과 의료방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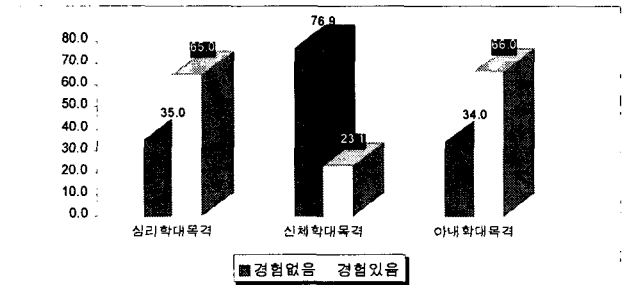
<표 2> 자녀학대 내용별 피해실태

단위: N(%)

유형	내용	없음	있음	
신체적학대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짐	442(75.0)	147(25.0)	
	움켜잡거나 때림	501(85.1)	88(14.9)	
	뺨을 때림	505(85.7)	84(14.3)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꼬집음	456(77.4)	133(22.6)	
	희초리, 빗자루 등으로 때림	199(33.8)	390(66.2)	
	은 몸을 두들겨 팬	526(89.3)	63(10.7)	
	방, 다락, 창고 등에 가둠	571(96.9)	18(3.1)	
	'멍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의 욕을 함	440(74.7)	149(25.3)	
	'너만 없으면 살겠다, 너같은 것은 죽어도 싸다' 등의 말함	510(86.6)	79(13.4)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함	546(92.7)	43(7.3)	
정서적학대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야'라는 말함	442(75.0)	147(25.0)	
	'이 웬수야라는 소리를 함	370(62.8)	219(37.2)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함	437(74.2)	152(25.8)	
	'엄마(아빠)가 도망가 버린다'는 말을 함	503(85.4)	86(14.6)	
	'너보다 못한 애는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함	504(85.6)	85(14.4)	
	'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엄마(아빠)라고 하지도 마'라는 말함	514(87.3)	75(12.7)	
	방임	아프거나 몸에 상처가 나도 신경을 써주지 않음	511(86.8)	78(13.2)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거나 낡은 옷을 입고 다녀도 신경쓰지 않음	547(92.9)	42(7.1)
		옷의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가 고장이 나도 잘 고쳐 주지 않음	546(92.7)	43(7.3)
		먹고 싶은데 아침을 챙겨주지 않아 굶고 학교에 감	530(90.0)	50(10.0)
도시락을 싸주지 않거나 밥 사먹을 돈을 주지 않음		552(93.7)	37(6.3)	
학교에 가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않음		566(96.1)	23(3.9)	
공부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음		549(93.2)	40(6.8)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 관심을 갖지 않음		541(91.9)	48(8.1)	
내 맘대로 집에 늦게 들어가도 신경쓰지 않음		548(93.0)	41(7.0)	
학교에 낼 돈이 있는데 제 때에 주지 않음		487(82.7)	102(17.3)	

2) 아내학대 목격실태

청소년의 가정 내 아내학대 목격실태를 경험유무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그림 2>), 조사대상 청소년의 65.0%가 지난 1년 동안 최소 1번 이상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심리적 학대를 목격한 경험하였으며, 23.1%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신체적 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조사대상 청소년 중 66.0%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가하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학대에 비해 아내학대 목격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조사대상 청소년의 약 ⅔ 정도가 아내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할만한 사항이며, 자녀에게 노출되지 않은 아내학대까지 감안한다면, 가정 내 아내학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 아내학대 목격 경험률

지난 1년간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가정 내 아내학대 목격실태를 내용별 살펴보면(<표 3>), 심리적 학대의 경우 '아빠가 엄마에게 고함이나 소리 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많은 목격빈도(55.2%)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 혹은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44.7%)가 높은 목격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3> 아내학대 내용별 목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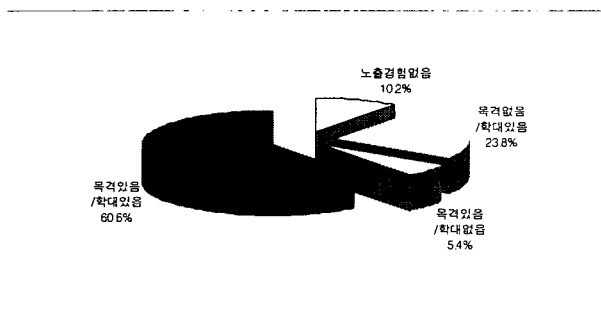
단위: N(%)

유형	내용	없음	있음
심리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 혹은 욕 함	326(55.3)	263(44.7)
	고함이나 소리 지름	264(44.8)	325(55.2)
	적 약점을 잡아 괴롭히는 말을 함	491(83.4)	98(16.6)
	학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함	543(92.2)	46(7.8)
	대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함	508(86.2)	81(13.8)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짐	510(86.6)	79(13.4)
	신 잡아당기거나 밀침	489(83.0)	100(17.0)
	체 뺨을 때림	550(93.4)	39(6.6)
	적 칼이나 방망이 등 흉기를 사용하여 때림	580(98.5)	9(1.5)
	학 물건으로 때림	547(93.2)	42(7.1)
대	목을 조름	581(98.6)	8(1.4)
	심하게 때림	551(93.5)	38(6.5)

신체적 학대는 '아빠가 엄마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많은 목격빈도(17.0%)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엄마에게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13.4%)가 높은 목격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물건으로 때리거나(7.1%), 빵을 때리거나(6.6%), 심하게 때리는 상황(6.5%)을 목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폭력 노출유형

자녀학대와 아내학대의 중복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학대 피해와 아내학대 목격 유무를 기준으로 가정폭력 노출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자녀학대와 아내학대 목격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전체 조사대상의 10.2%를 차지하였으며, 자녀학대 피해는 있으나 아내학대 목격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23.8%, 자녀학대는 경험하지 않았으나 아내학대는 목격한 집단은 5.4%, 자녀학대와 아내학대에 모두 노출된 집단은 60.6%로 나타났다. 요약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집단(89.8%)이 비노출 집단(10.2%) 보다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학대/아내학대 모두 경험한 집단 > 자녀학대만 경험한 집단 >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없는 집단 > 아내학대 노출만 경험한 집단 순으로 분포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자녀학대와 아내학대를 모두 경험한 집단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학대와 아내학대는 중복발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김연옥 등 2000; Hughes, 1998)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림 3> 가정폭력 노출유형

2.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1)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 등 모든 하위척도에서 자녀학대 피해, 아내학대 목격, 가정폭력 노출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학대 피해를 많이 받은 청소년집단과 아내학대를 많이 목격한 청소년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우울/불안 증상이 심하며, 위축행동을 더욱 많이 하고, 신체증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반면,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없는 청소년집단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집단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우울/불안, 위축, 그리고 신체증상 등 내재화 문제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의 차이

변인	구분	수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	
			Mean	D	Mean	D	Mean	D
자녀학대 피해	없는 집단	92	6.73	C	3.83	C	3.61	C
	중간 집단	433	9.03	B	5.00	B	4.79	B
	많은 집단	64	12.36	A	6.45	A	6.58	A
	F-Value		25.27***		11.81***		11.47***	
아내학대 목격	없는 집단	200	7.06	C	3.94	C	3.89	C
	중간 집단	341	9.56	B	5.14	B	5.04	B
	많은 집단	48	13.48	A	8.08	A	6.90	A
	F-Value		40.31***		33.11***		13.72***	
가정폭력 노출 유형	없는 집단	60	6.02	C	3.32	C	3.12	B
	목격무/학대유	140	7.51	CB	4.21	CB	4.22	BA
	목격유/학대무	32	8.06	B	4.78	BA	4.53	A
	목격유/학대유	357	10.22	A	5.57	A	5.33	A
F-Value		20.10***		11.44***		7.32***		

***p<.001

주) (<표4~6>) 자녀학대 피해집단 및 아내학대 목격집단 집단분류 기준: 총점 0=없는집단, 0<중간집단<M+SD, M+SD≤많은집단

2)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외현화 문제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외현화 문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5>), 공격성과 비행 모두 자녀학대 피해, 아내학대 목격, 가정폭력 노출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5>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외현화 문제의 차이

변인	구분	수	공격성		비행	
			Mean	D	Mean	D
자녀학대 피해	없는 집단	92	8.73	C	2.18	C
	중간 집단	433	12.08	B	3.26	B
	많은 집단	64	15.73	A	4.80	A
	F-Value		25.27***		11.81***	
아내학대 목격	없는 집단	200	9.83	C	2.77	B
	중간 집단	341	12.61	B	3.30	B
	많은 집단	48	16.15	A	5.00	A
	F-Value		28.53***		17.69***	
가정폭력 노출 유형	없는 집단	60	8.08	C	1.95	C
	목격무/학대유	140	9.94	CB	2.63	CB
	목격유/학대무	32	10.57	B	3.12	BA
	목격유/학대유	357	13.33	A	3.59	A
F-Value		19.78***		9.46***		

***p<.001

자녀학대 피해가 많은 청소년집단과 아내학대를 많이 목격한 청소년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고, 비행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없는 청소년집단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집단들에 비해 공격적 행동 및 비행행동을 유의미하게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 역시 자녀학대 피해, 아내학대 목격, 가정폭력 노출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녀학대 피해가 많은 청소년집단과 아내학대 목격경험이 많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집단들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리고, 자녀학대와 아내학대에 모두 노출된 청소년집단이 다른 청소년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적 능력 차이

변인	구분	수	사회적 능력		변인	구분	수	사회적 능력	
			Mean	D				Mean	D
자녀학대 피해	없는 집단	92	6.19	A	가정폭력 노출 유형	없는 집단	60	6.38	A
	중간 집단	433	6.16	A		목격무/	140	6.41	A
	많은 집단	64	5.55	B		학대유	32	6.25	BA
	F-Value		8.65***			폭력 목격유/	357	5.96	B
아내학대 목격	없는 집단	200	6.37	A	F-Value	6.09***			
	중간 집단	341	6.04	B					
	많은 집단	48	5.39	C					
	F-Value		16.41***						

***p<.001

3.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1)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간의 상관관계

변인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녀학대 피해는 아내학대 목격과 높은 상관관을 보였는데, 자녀학대 피해가 많을수록 아내학대 목격 역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변인은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¹⁾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나타내, 가정폭력 중복 발생의 경향을 다시 한 번 지지해주었다.

가정폭력 노출 관련 변인인 자녀학대 피해 및 아내학대 목

1) 가정폭력 노출유형을 기준으로 노출경험이 없는 집단은 0점, 한 가지 유형에 노출된 집단은 1점, 두 가지 유형에 노출된 집단은 2점으로 점수를 주어 서열척도로 재부호화 하였다.

격,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는 청소년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나타내고, 사회적 능력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즉, 자녀학대 피해를 많이 받은 청소년집단,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학대를 많이 목격한 청소년집단,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가 많은 청소년집단이 우울/불안증상이 많으며, 위축된 행동을 많이 하고, 신체증상을 많이 보고하고, 공격행동을 많이 하며, 비행 또한 많이 하는 반면, 사회적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학대와 아내학대 목격은 적응 하위척도 중 우울/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관을 보이고,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가장 높은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정폭력 노출은 청소년기 자녀의 적응상 문제 중 특히 우울/불안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내재화 문제의 하위척도들과 외현화 문제의 하위척도들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으며, 이 척도들과 사회적 능력척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따라서 내재화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외현화 문제의 어려움 역시 많이 겪는 반면, 사회적 능력은 낮아 궁극적으로 부적응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정폭력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진단 결과, 독립변인간 상관관이 .52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확대인자(VIF)는 1.218-1.480의 범위로 모두 10이하로 산출되었으며, Durbin Watson 계수(D.W.) 역시 1.833-1.988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다중공선성과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 자료의 회귀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내재화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불안의 경우 자녀학대 피해와 아내학대 목격,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자녀학대 피해가 많을수록, 아내학대 목격을 많이 할수록,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가 많을수록 우울/불안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중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델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15.5%였다.

위축에 대해서도 자녀학대 피해와 아내학대 목격,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자녀학대 피해가 많을수록, 아내학대 목격을 많이 할수록,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가 많을수록 위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중 아내학대 목격이 청소년기 자녀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델의 청소년기 자녀의 위축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1.1%였다.

<표 7> 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자녀학대피해	1.00								
2. 아내학대목격	.52***	1.00							
3. 폭력노출유형수	.33***	.40***	1.00						
4. 우울/불안	.31***	.32***	.30***	1.00					
5. 위축	.24***	.31***	.23***	.74***	1.00				
6. 신체증상	.20***	.24***	.19***	.57***	.52***	1.00			
7. 공격성	.25***	.24***	.21***	.58***	.45***	.49***	1.00		
8. 비행	.25***	.24***	.21***	.47***	.41***	.42***	.61***	1.00	
9. 사회적 능력	-.21***	-.23***	-.14**	-.20***	-.25***	-.16***	-.13**	-.18***	1.00

p<.01 *p<.001

신체증상의 경우는 아내학대 목격과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내학대 목격을 많이 할수록,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가 많을수록 신체증상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델이 청소년기 자녀의 신체증상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6.7%였으며, 세 변인 중 청소년기 자녀의 신체증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인은 아내학대 목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폭력노출변인	종속변인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	
	B	β	B	β	B	β	B	β
자녀학대 피해	2.35	.17***	.86	.09*	.91	.09		
아내학대 목격	2.16	.16**	1.93	.22***	1.56	.15**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	1.38	.18***	.59	.12**	.58	.10*		
R ²	.159		.116		.072			
Adjust-R ²	.155		.111		.067			
F-Value	36.843***		25.519***		15.027***			
D.W.	1.988		1.833		1.906			

*p<.05 **p<.01 ***p<.001

외현화 문제에 대한 회귀모델을 살펴보면, 공격성의 경우는 자녀학대 피해와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자녀학대 피해가 많을수록,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가 많을수록 공격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델의 청소년기 자녀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은 13.3%였으며, 세 변인 중 청소년기 자녀의 공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경우는 자녀학대 피해와 아내학대 목격, 가정폭력 노

출유형 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자녀학대 피해가 많을수록, 아내학대 목격을 많이 할수록,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가 많을수록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중 자녀학대 피해가 비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본 회귀모델이 청소년기 자녀의 비행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8.3%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능력에 대한 회귀모델의 경우, 자녀학대 피해와 아내학대 목격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자녀학대 피해를 많이 받을수록, 아내학대를 많이 목격할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델이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6.1%였으며, 세 변인 중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내학대 목격이었다.

<표 9>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외현화 문제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노출변인	종속변인		공격성		비행		사회적 능력	
	B	β	B	β	B	β	B	β
자녀학대 피해	3.13	.19***	1.05	.16**	-.38	-.12*		
아내학대 목격	1.16	.07	.70	.11*	-.45	-.15**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	1.90	.21***	.40	.11*	-.06	-.04		
R ²	.137		.088		.066			
Adjust-R ²	.133		.083		.061			
F-Value	31.029***		18.790***		13.643***			
D.W.	1.855		1.879		1.860			

*p<.05 **p<.01 ***p<.001

요약하여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은 우울/불안(15.5%)> 공격성(13.3%)> 위축(11.1%)> 비행(8.3%)> 신체증상(6.7%)> 사회적 능력(6.1%) 순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의 자신이 직접 학대를 당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학대를 목격한 자녀들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들(이경주 등, 1998; 이정은 등, 2000; Markward, 199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 노출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그리고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어, 가정폭력 노출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아내학대와 자녀학대를 모두 포함하여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가족 복지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광주지역 소재 중학교 1~3학년 청소년 5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가정 내 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폭력노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중 84.4%(신체적 학대 74.5%, 정서적 학대 57.0%, 방임 34.4%)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녀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66.0%(심리적 학대 목격 65.0%, 신체적 학대목격 23.1%)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가하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학대가정 내에서는 자녀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발생 하는 경향이 높다. 가정폭력 노출유형을 중심으로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자녀학대와 아내학대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집단이 전체의 60.6%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다. 상관분석 결과 역시 자녀학대 피해와 아내학대 목격이 유의 미하게 높은 관련성($r=.52$)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정은 하나의 체계로서 상호 순환하는 연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순환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나아가 아내학대와 자녀학대를 각각 개별적인 문제로 다루는 시각에서 벗어나 상호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 바라보는 전체주의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요약하여, 가정 폭력에 대한 복지서비스 실천관점에 있어서 아내학대에 대해서는 여성복지적 관점을, 자녀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나 청소년 복지적 관점만으로 접근하기 보다 가족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가족성원 전체를 개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 노출정도가 심각한 청소년기 자녀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적응 정도가 심하다. 즉, 자녀학대 피해가 많은 청소년집단과 아내학대 목격경험이 많은 청소년집단, 자녀학대와 아내학대에 모두 노출된 청소년집단이 다른 청소년집단들

에 비해 유의미하게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의 어려움은 많이 겪는 반면, 사회적 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노출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노출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수립 역시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넷째,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 회귀분석 결과, 자녀학대 피해, 아내학대 목격, 가정폭력 노출유형 수 등 가정폭력 노출관련 변인들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하위척도인 우울/불안은 15.5%, 위축은 11.1%, 신체증상은 6.7%를 설명해 주었다.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하위척도인 공격성은 13.3%, 비행은 8.3%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6.1%였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적극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학대가정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서비스 체계 활성화 역시 폭력 재발 방지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광주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국한시켜 지역적인 한계와 더불어 청소년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러한 표집상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면 좀 더 폭넓은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접수 일 : 2003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0월 10일

【참 고 문 헌】

김연옥, 박인아(2000).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03-127.
 김재엽, 양혜원(1998). 자녀학대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연세사회 복지연구*, 5, 37-62.
 김재엽, 정소연(1997). 청소년 비행과 가정폭력. *한국아동복지학*, 5, 71-93.
 김정란(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 석사 논문.

- _____(2002). 아내학대에 대한 부부체계적 접근. 전남대 박사논문.
- 박은미(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신혜섭(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 67-85.
- 양혜원, 전명희(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사회복지연구*, 6-7, 127-152.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hild Behavior Checklist: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 이경은, 장덕희(2000).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7(1), 95-123.
- 이경주, 신효식(1998).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8), 39-50.
- 이혜련, 최보가(1999).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 75-85.
- 장화정(1998). 아동학대 평가척도 개발. 숙명여대 석사논문
- 조미숙(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Achenbach, T.M., Edelbrock, C.(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Briere, J., Runtz, M.(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and Neglect*, 12, 331-341.
- Edleson, J.L.(2000).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증복.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예방과 개입에 관한 국제 워크샵 자료집.
- Fantuzzo, J.W., Lindquist, C.U.(1989). The effects of observing conjugal violence on children: A review and analysis of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Family Violence*, 4, 77-94.
- Hughes, H.M.(1988).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family violence in child witnesses an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8, 77-90.
- Jaffe, P.G., Wolfe, D.A., Wilson, S., Zak, L.(1986). Similarities in behavioral and social maladjustment amo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to family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142-146.
- Kanshani, J.H., Allan, W.D.(1998).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Thousand Oaks, CA: Sage.
- Lazarus, R.S.(1963). *Personality and adjustment*. Englewood Cliff: Prentice Hall.
- Markward, M.J.,(1997).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family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66-70.
- Straus, M.A., Hamby, S.L., Boney-McCoy, S., Sugarman, D.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